

수입차 판매 ‘쾌속 질주’

상반기 14만7757대 등록
벤츠 4만2017대 ‘부동의 1위’
국내 외국계 3사 판매는 줄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쾌속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수입차가 15만대에 육박하면서 역대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또 다시 갱신했다.

그 중에서도 메르세데스-벤츠가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에 이름을 올리면서 ‘왕좌’를 지켰다. 무엇보다 벤츠와 BMW, 아우디 등 3개 브랜드 판매가 국내 외국계 완성차 업체 3사의 판매량을 넘어섰기도 했다.

1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전체 수입차 판매 대수는 총 14만7757대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수입차 중에서도 상반기 신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았던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였다. 벤츠는 지난해 상반기 3만6368대보다 16% 증가한 4만2017대로 국내 판매가 증가했다. 벤츠의 시장 점유율도 28.5% 수준으로, 수입차 10대 중 3대가 벤츠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BMW가 2만5430대에서 42.6%증가한 3만6261대를 기록했고, 아우디도 1만711대에서 7.2% 오른 1만798대가 신차로 등록됐다.

이처럼 수입차의 쾌속 질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외국계 3사의 내수 판매는 오히려 뒷걸음치치고 있다.

한국GM은 작년 상반기 4만1092대에서 올해 상반기 3만3160대로 19.3% 감소했고, 르노삼성차 역시 5만5242대에서 47.8%나 감소한 2만8840대에 그쳤다. 쌍용차도 4만855대에서 2만6625대로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가 14만7757대로 2003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1만4733대가 판매된 수입차 모델 중에서 ‘베스트셀링카’에 오른 메르세데스-벤츠의 E 클래스.

34.8%가 줄었다.

벤츠와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인기 3위 브랜드의 국내 판매는 8만9076대로, 르노삼성차와 한국GM, 쌍용차 등 외국계 3사의 국내 판매 8만8625대보다 1000대 상당 더 많다.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 브랜드 순위 역시 현대차(38만6095대)와 기아(27만8287대)가 각각 1위와 2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3위로 올라섰다.

수입차의 인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을 비롯한 외부 활동과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보복 소비’ 심리와 함께 고급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도 수입차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모델별 베스트셀링카에는 중형 세단들이 차지했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의 E 클래스는 올 상반기 1만4733대가 판매돼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어 BMW 5시리즈 1만823대, 아우디 A6 5556대 순이다.

5월 출시된 벤츠 대형 세단 S 580 4매틱(MATIC)의 경우 지난달 965대가 판매돼 수입차 트립별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와 외국계 3사 등이 RV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중점 생산·판매하면서 중형 세단에 대한 수요가 수입차로 넘어간 듯 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린 소비 욕구와 고급차에 대한 관심이 수입차 구매로 이어지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974년생 ‘포니 쿠페’ 부활한다

현대차 국내 첫 컨셉카 영상 ‘배틀그라운드’서 공개

현대자동차는 ㈜크래프톤 펍지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최초 컨셉카 ‘포니쿠페’(Pony Coupe) 영상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선보인 신규 맵 ‘태이고’를 통해 1974년 탄생된 전설의 포니쿠페 부활을 알렸다. 포니 쿠페는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공개되며 화제가 됐던 모델로, 양산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배틀그라운드 공식 SNS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은 포니쿠페 차량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을 비롯해 엔진소리까지 완벽히 구현된 모습으로 1980년대 한국의 중소도시를 배경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업을 기념해 현대자동차와 펍지스튜디오는 포니쿠페의 매력과 활용도를 선보이기

위한 ‘현대차 배그대잔치’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게임 전문 인플루언서 ‘김블루’와 ‘김성태’ 두명의 리그로 개최되는 개별리그를 펼친 후, 선발된 64명이 스쿼드(4인 1팀) 형태의 리그전을 진행하며 상금은 총 1억3000만원이다. 5라운드에 걸쳐 진행되는 통합리그전 종료 후에는 게임내 포니쿠페로 펼쳐지는 히든 미션도 진행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전지차 ‘아이오닉 5’의 디자인에도 영감을 준 포니쿠페를 MZ세대가 즐겨하는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어 기쁘다”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일상에 소소한 기쁨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비대면 캠페인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친환경차 인기 ‘쾌속 수출’

현대차·기아 1~5월 14만5781대 수출... 지난해보다 45% 늘어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에 힘입어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수출한 친환경차는 총 14만5781대로 작년 같은 기간(10만691대)에 비해 4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8만1278대, 기아는 6만4503대를 수출하며 각각 45.5%와 43.8% 늘었다.

올해부터 싼타페와 쏠렌토, 투싼 등 하이브리드 SUV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된 가운데 니로 EV 등 기존 전기차 모델들과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힘을 보태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현대차·기아의 올해 친환경차 수출은 30만대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기아가 5월까지 수출한 하이브리드차는 8만109대로 작년 같은 기간(4만6888대)에 비해 70.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SUV는 5만7804대로 작년 같은 기간(3만532대)보다 89.3% 증가했다.

현대차·기아가 수출한 하이브리드 모델 가운데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72.2%에 달했다.

니로 하이브리드가 작년보다 0.7% 증가한 1만8658대로 가장 많았고, 코나 하이브리드는 1만3115대로 9.3% 늘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싼타페 하이브리드

(8362대)와 투싼 하이브리드(8128대), 쏠렌토 하이브리드(9541대)의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하이브리드차의 전체 수출량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1만2202대)와 아반떼 하이브리드(4239대), 쏘나타 하이브리드(5851대) 등 세단 모델도 힘을 보탤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경우 니로 8539대, 아이오닉 3735대, 싼타페 2367대 등 총 1만4641대가 수출돼 작년 같은 기간(1만2445대)에 비해 17.6%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하이브리드 SUV 모델이 거의 없었지만 쏠렌토, 투싼 등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서 친환경차 수출도 늘었다”며 “앞으로 하이브리드 SUV 모델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시작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이 시작됐다.

기아는 전국 기아 판매 지점과 대리점에서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출시 예정인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국산 브랜드 처음으로 E-라이드(Ride) 기술을 적용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성을 활용해 과속 방지턱 등 둔턱 통과 시에 차량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관성력이 발생하도록 모터를 제어해 승차감을 향상했다.

회전식 구동모터의 가감속을 통해 차량의 전후 하중 분산을 조절해 조향 응답성을 높이는 ‘E-핸들링’ 기술도 탑재됐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반영한 판매가격은 트림별로 프레스티지가 3109만원, 노블레스 3269만원, 시그니처 3593만원이다.

기아의 대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신형 스포티지는 2015년 기존 모델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5세대 완전전경 모델이다.

신형 스포티지에는 1.6 터보 가솔린, 2.0 디젤, 1.6 터보 하이브리드 등 3개의 신규 파워트레인 탑재된다. 지난 6월 1.6 터보 가솔린과 2.0 디젤 모델은 사전계약을 시작했으며, 사전계약 첫날 1만6078대를 기록해 국내 SUV 중 쏠렌토(1만8941대)에 이어 두 번째 최다 계약 기록을 썼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예금 한시모집
 특판시기 : 2021. 7. 5 ~ 7. 23 (3주), 한도소진시 판매 종료

유니온 정기예탁금

12개월 연 2.06%
 (세전 / 만기해지)

① 신탁ON뱅크 어플 다운로드 후 조합원 가입 ② 상품물 → 유니온정기예탁금 ③ 가입신청

파워 정기예탁금

18개월 연 2.0%
 (세전 / 만기해지)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파란적금 36개월 2.0%
 (온뱅킹 전용상품) 세전 / 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신로 38)	266-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9)	573-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8)	528-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매곡지점 (북구 설죽로 315번길1)	572-4150	첨단지점 (북구 첨단신로 91번길2-4)	576-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83, 285)	263-4150

평생여부
광주문화신탁
 신탁중앙회 심의필 제2021-15호(2021.7.6.) 유효기간 2021.12.31.까지